

## 장례절차 안내 (3일장)

### 1일차

#### 운구 및 안치

장례식장 직원이 사망 장소(병동, 응급실)에서 장례식장으로 운구, 안치합니다.

#### 준비사항

1. 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1부(화장장 또는 장지 제출용)
3. 사전에 준비된 영정사진(미 준비 시 증명사진 또는 확대출력 가능한 해상도의 일반사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부(해당자)

#### 빈소준비

- 이용안내 및 상담
- 빈소(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장의용품 등 결정
- 입관시간 결정, 화장장 예약
- 발인 시 이용할 장의차량 예약

### 2일차

- 염습 · 입관
- 성복제 및 종교예절

### 3일차

#### 발인

- 장지에서 사용할 물품 및 장의 차량 배치 확인
- 장지에서 운구인원 확보
- 발인의식 준비
- 고인 인도 · 인수  
(유가족 중 한 분 동행, 이상 유무 확인)

#### 장지

- 화장(매장), 납골당(수목장) 등



### 사별가족 관련 안내

상실감은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닌 슬픔에서 오는 우울한 감정입니다.

사별상실의 슬픔은 고인의 부재 후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다양한 변화와 어려움에서 생겨 납니다. 때로는 용감하게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사별상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일상 생활도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별상실로 인한 슬픔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개별 상담 및 유가족 지지 모임 등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담간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별가족 상담문의 : 02) 3010-1174,1187

#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 임종에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 의식이 떨어지고 잠자는 시간이 많아 집니다.

- 일부러 자주 깨울 필요는 없습니다.
- 청각과 촉각은 유지되므로 환자 곁에서 손을 잡거나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 집니다.

- 신체기능이 떨어져 삼키지 못하게 되며, 식사를 못하여 돌아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 수액·영양제를 투여해도 몸이 좋아지지 않으며, 부종·가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 입과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젖은 거즈를 덮어주거나 물로 적셔주세요.

### 숨이 고르지 않고 숨을 알게 몰아쉬거나 느려집니다.

- 뇌기능이 떨어져 숨 쉬는 것을 조절하지 못해 숨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숨이 차서 힘들어 하거나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 숨이 차서 힘들어 보이는 경우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 혈압, 맥박이 약해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집니다.

- 심폐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압, 맥박, 산소 수치가 떨어집니다.
- 심전도 기계, 혈압측정, 산소 수치 측정, 산소투여 등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혈압이나 산소수치보다는 환자분이 편안하신지가 중요합니다.

###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납니다.

- 삼키는 힘이 떨어져 목에 분비물이 고여 가래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 가래 때문에 환자의 숨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 상체를 조금 올리거나 고개를 돌려서 분비물이 흘러나오게 해 주세요.

###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음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찌푸리실 수 있습니다. 신음 소리는 가슴에 있는 호흡 근육이 이완되면서 나는 소리 이므로 통증이 있어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 눈을 꼭 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턱이 아래로 떨어져 입으로 숨을 쉬기도 합니다.
-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창백해지기도 합니다.
- 열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 소변양이 줄거나 대소변 실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임종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하나, 환자마다 나타나는 징후는 다양합니다.

\* 환자에 따라서는 예기치 못한 상태 변화에 의해 갑작스럽게 임종 과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종이 임박하면 어떤 치료를 하나요?

- 통증, 호흡곤란, 기타 환자의 불편한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 수액·영양제는 부종, 가래 등이 심해 질 수 있어 중단합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심전도,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은 하지 않으며 모니터링 수치보다는 환자의 불편한 증상 조절을 위주로 치료합니다.
- 증상 조절에 불필요한 약물 및 처치는 중단 합니다.

###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 환자가 평소 좋아하던 음악이나 종교음악을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 환자가 보고 싶어하는 친지들에게 연락합니다.
- 환자의 곁을 지키며 이야기를 해 주시거나 환자 침대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 입이나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젖은 거즈를 덮어주거나 물로 적셔줍니다.
-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면 젖은 거즈로 덮어드립니다.
- 열이 나면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줍니다.

### 임종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호흡 및 맥박이 멎으면 의사가 진찰하여 임종을 확인합니다.
- 수액이나 몸에 유지하고 있는 관을 제거하고 침상을 정돈합니다.
- 애도의 시간을 갖거나 원하는 경우 종교적 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퇴원 수속을 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 원내 장례식장으로 먼저 이동 후 정해진 장례식장으로 운구합니다.

### 장례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가능하면 환자가 원하는 장례 절차를 준비합니다.
- 영정사진을 준비해 둡니다.
- 가족들이 상의하여 장례식장을 정합니다.